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拂, 小佛 佛壇, 생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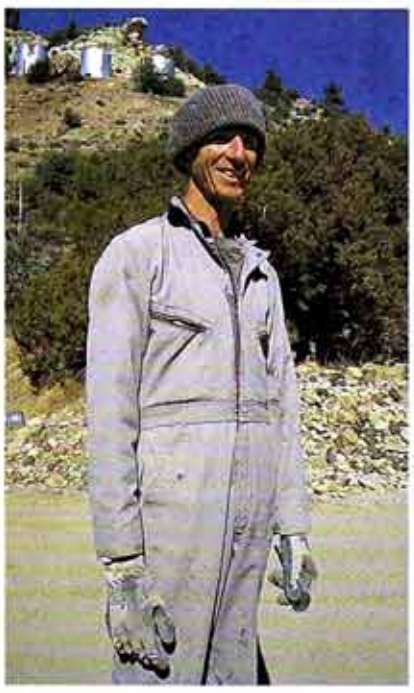
지난 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골에 한국 불교 전통 양식의 대웅전을 짓고 있는 태고사의 불사 현장을 찾았다. 1978년 예일대 재학 시절 승산 스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1979년 승산 스님의 제자가 되어 4년 동안 한국에서 수덕사 선방을 비롯한 여러 수행처에서 참선 수행을 한 무량 스님. 미국 땅에 한국 불교의 수행 도량 만들기를 평생 원력으로 세운 후, 1994년 인디언들의 주요 성지였던 테하차피 산에 도량을 닦기 시작했다. 손수 트럭, 굴삭기, 기중기를 다룬 스님의 노력에 교민 불자들의 힘이 보태져서 이제는 회향의 날을 손꼽아도 좋을 만큼이 됐다. 한국에서 제작한 문과 기와는 현재 선적을 앞두고 있다. 미국 속의 한국 절, 태고사. 교민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한국 선불교의 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수행 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대웅전 축대공사가 한창이다. 무량 스님은 직접 기중기를 운전하며 노동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태고사로 발길을 이끄는 안내판. 이웃 마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참배객들의 몸가짐을 정갈하게 한다.

◇법회 후 불자들이 손수 만든 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수행의 길을 묻고 답하는 또다른 법회다.

미국속 한국절 '태고사' 회향의 날만…


인터뷰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

한국전통운치 못살려 "대단히 유감스럽다"

▲불교의 보편 가치는 국가를 초월한다. 그런데 왜 한국 불교인가?

"승산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됐고 선의 세계에 대해 눈뜨게 됐다."

특수 사례로 보편 가치를 얘기하는 스님.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느껴진다.

▲대웅전의 외양이 애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한국 전통 사찰의 운치를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큰 걸로 알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듭 유감의 뜻을 밝힌 스님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연 도리'로 답답히 현상을 받아들였다.

▲언제 쯤 불사를 회향하는가?

"모르겠다. (웃음) 계획 따위에 미련을 두지 않은지 오래다"

스님의 말투는 이미 도인의 풍모를 닮아 있다. 미국인 무량은 현상 한국 스님이었다.

"글이 회수를 넘으면 행자가 된다"고 했다. 풍토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의 생태를 비유한 말이다.

도봉산 태고사(道峯山 太古寺), 미국식 이름은 마운틴 스피리트 센터(Mountain Spirit Center). '글과 행자'의 관계만큼이나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자아내는 묘한 조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느낌일 뿐, '조합'은 '조화'로, 조화는 다시 한국 불교 전통의 소중한 가치들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왜 미국 스님이 한국 절을 짓느냐?'는 물음은 이제 부질없다. 미국인이, 그것도 예일대 출신의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한국의 불문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호기심어린 시선이 계속되는 것도 곤란하다. 진정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지리적·문화적 울타리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르침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道峯山 太古寺' 현판 눈길

미국의 서부에 길게 누운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모하비 사막과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테하차피 산 기슭에 터를 잡은 태고사. 로스엔젤레스에서 약 185㎞, 서울서 대전 쯤 되는 거리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모하비 사막의 언저리를 가로지를 때의 풍광은 말 그대로 살풍경. 과연 이런 곳에 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한갓진 우리네 시골길을 떠올리게 하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면서 태고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오자 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더욱이 시속 15마일로 '천천히 운전하세요'라는 한글 안내문은 대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겹다. 절 주위의 이웃들에게 소음과 먼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다. 크고 화려한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이 없어도 절로 가는 마음은 절로 정갈해진다.

길이 길을 잃은 곳, 그곳에 깨달음의 길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신축중인 대웅전에 앞서 지어진 요사채에는 한자로 '도봉산 태고사'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서울 수유리의 화계사를 본사로 한 한국 선불교의 도량임이 이로써 분명해진다.

일요일마다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한국 교민들의 모습이 반갑게 다가온다. 로스엔젤레스 코리아 타운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리 토종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주위를 한바퀴 둘러보려는 순간 뜻밖의 키에 파란 눈의 무량 스님이 작업복 차림으로 신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미국에 한국 절을 세우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라고 밝히자 "멀리까지 찾아 줘서 고맙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화합을 하신다.

11시 정각, 장삼에 가사를 갖춘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가 시작됐다. 50명에 가까운,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당에 가득하다. 약간 변형된 형태의 법회는 천수경 독송에 관음정근, 15분간의 입정 그리고 법담을 나누는 마지막 순서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진지하고도 엄숙한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법회를 마치고 한국 신도들이 제각기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마치자 어느 새 스님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크레인 위에 앉는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불가의 전통대로다.

불교가치 드높이길…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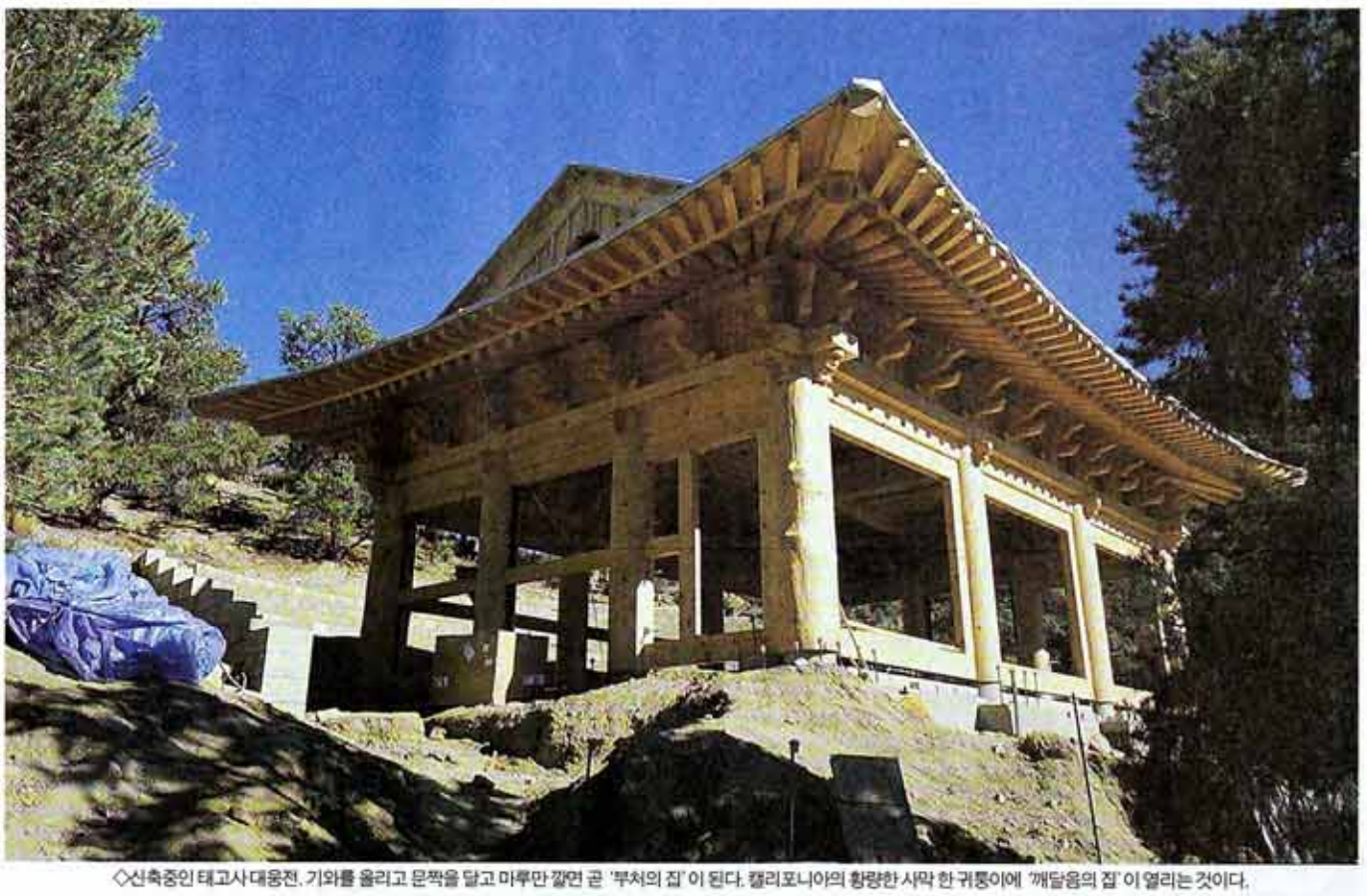
대웅전 축대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붕의 곡선이나 처마의 길이가 한국의 고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한국의 전통 사찰 양식에 충실하려 한 무량 스님의 뜻을 읽기에는 충분하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사찰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태고사. 더 이상은 불가능할 정도의 검약,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자급, 스님이 손수 만든 무공해 세재 사용,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물의 재사용, 건물 주위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공사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연에 대한 더없는 존경. 한국 불교의 단순한 외양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설 때의 기분은 오랫 동안 벌려온 심산 유곡의 고찰 참배를 마친 것과 흡사했다. 이러한 기자의 심경은 취재를 주선해 준 선우중욱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났다.

"한국인으로서 무량 스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 바로 그것이다. 태고사를 통해 불교의 드높은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된 점은 더욱 고마운 일이다."

미국=윤제학 기자 yunh@buddhanews.com


◇신축중인 태고사 대웅전. 기와를 올리고 문짝을 달고 마루만 깔면 곧 '부처의 집'이 된다. 캘리포니아의 황량한 사막 한 귀퉁이에 '깨달음의 집'이 열리는 것이다.

LA서 185km 산기슭에 자리

불가 전통 생활화…철저한 절약·자연 친화

법회시작되자 50여 교민불자 법당 메워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